‘세계 5위’ 황선우, 금빛 꿈을 선물하다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 5위 신나는 질주…3년뒤 파리올림픽이 더 기대

강산 기자의 여기는 도쿄

한국선수 첫 자유형 100m 결선
세계 최강자들과 47초대서 경합
어린나이에 첫 올림픽 성공 체험
굵직한 대회 앞두고 자신감 고조
자유형 50m, 피날레도 관심집중

황선우가 29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펼쳐진 2020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을 앞두고 수경을 고쳐 쓰고 있다.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47초82의 좋은 기록으로 당당히 세계 5위에 올랐다. 3년 뒤 파리올림픽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다. 도쿄 | 뉴시스

대한민국수영의 차세대 기수 황선우(18·서울체고)가 자유형 200m에 이어 100m에서도 경쟁력을 뽐내며 미래의 희망을 부풀렸다.

황선우는 29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펼쳐진 2020도쿄올림픽 경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에서 47초82로 5위를 기록했다. 케일럽 드레셀(미국·47초02), 카일 차머스(호주·47초08), 킬멘트 콜레스니코프(러시아올림픽위원회·47초44)가 금·은·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황선우는 27일 열린 자유형 남자 200m 결선에서 150m 구간까지 1위로 질주하는 등 폭발적 스피드를 자랑한 바 있다. 최종 순위는 7위(1분45초26)였지만, 세계적 선수들과 맞서 주눅 들지 않았던 배짱에 찬사가 쏟아졌다. 이어 28일 벌어진 자유형 100m 준결선에선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결선에 올라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선수로는 처음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선 무대에 선 황선우의 스타트는 최고였다. 0.58초의 반응속도는 금메달리스트 드레셀(0.60초)보다 빨랐다. 200m와 100m 결선에서 모두 가장 빠른 반응속도를 기록한 그가 입수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 마리의 돌고래를 연상케 했다.

그러나 초반 레이스에서 압도적 피지컬을 갖춘 경쟁자들에게 밀렸다. 50m 구간을 23초12(6위)로 통과했고, 막판 전력을 다했지만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린 데 만족해야 했다.

메달에는 닿지 못했지만, 황선우는 세계수영을 주름잡는 선수들과 맞붙어 톱5에 들었다. 결선에 오른 8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그의 역영은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수영 하면 황선우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는 스스로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만큼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도쿄올림픽 기대주로 꼽혔던 것은 아니다.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가 확정된 지난해 중반부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덕분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수영을 즐기던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수영을 접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꿈만 같은 무대였지만 어린 나이에 당당히 올림픽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입증했다.

도쿄올림픽은 2024파리올림픽에 앞서 황선우에게는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무대였다. 더욱이 자유형 100m에선 톱5 진입이라는 성공체험까지 했다. 2022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아시안게임,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계기였다. 황선우는 30일부터 시작하는 자유형 50m에 출전해 처음 경험한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다.

▶ 도쿄올림픽 관련기사 2·3·4·6·8면

posterboy@donga.com

TOKYO 2020
스포츠동아
sportsdonga.com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김학범호, 내일 오후 8시 4강행 걸린 단판승부

올림픽축구대표팀이 31일 멕시코를 상대로 도쿄올림픽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올림픽 무대에선 멕시코에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기분 좋은 승리를 추가한다면, 9년만의 올림픽 메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28일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뒤 이강인(오른쪽)을 격려하는 김학범 감독. 요코하마 | 뉴시스

“어게인 2016” 멕시코 납작코!

5년전 리우선 1-0…올림픽 본선 역대 전적 2승2무
김학범 감독 “경기 치를수록 컨디션 좋아지고 있다”

한국축구는 2020도쿄올림픽 8강에 올라 9년만의 올림픽 메달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8일 일본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전(3차전)에서 ‘북중미의 다크호스’ 온두라스를 6-0으로 완파하며 2승1패(승점 6), 조 1위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쥔 상태다.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로 발탁된 원톱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가 페널티킥(PK) 2골을 포함해 해트트릭 쇼를 펼쳤고, 원두재(울산 현대)-김진야(FC서울)-이강인(발렌시아)도 1골씩을 보태며 대승에 기여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의 8강전 상대는 ‘북중미의 최강’으로 군림해온 멕시코다. 개최국 일본이 속한 A조에서 2위(2승1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멕시코와 31일 오후 8시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4강 진출을 다툰다. 8강전에서 이기면 메달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준결승과 결승전(또는 동메달 결정전) 등 남은 2경기 중 한 번만 이겨도 올림픽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멕시코와 A매치 역대 전적에선 4승2무8패로 뒤진다.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2로 패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진 친선경기에서도 2-3으로 졌다. 그러나 A매치와 올림픽 축구는 전혀 다르다. 23세 이하(U-23) 대표팀 레벨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패한 적이 없었다. 역대 7차례 만나 3승4무로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올림픽 본선에서 4차례 맞붙어 2승2무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0-03815호(2020.12.24) 〈COM-2020-08-32243〉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뇌출혈 보장빈틈

“암 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생활비 보장빈틈

“사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차 안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심장질환 보장빈틈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생각될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배당 백세시대 꼭하나건강보험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AIA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한)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과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즈 2in1 와이드 그릴 상담완료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2020.12.01~2021.12.31)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분 이상 상담 시(개인정보 제공)
• 배송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1인 1회 한정)
(당사 사은품 지급 누적 연 2회 초과 시 지급 제한)
• 본 경품은 소비자가 기준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디른 경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